

국내 주식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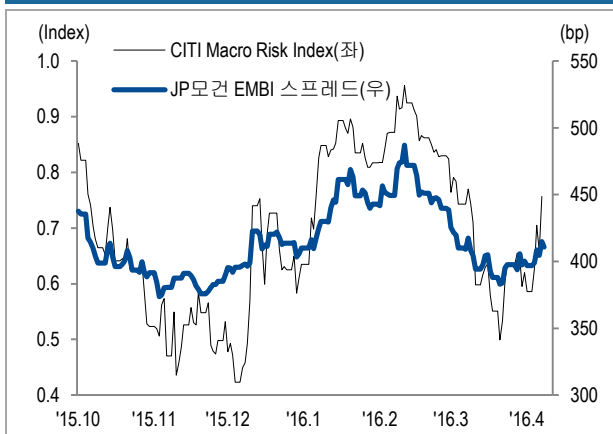
이익개선 기대감은 한 단계 더 위로



여전히 Risk-On 심리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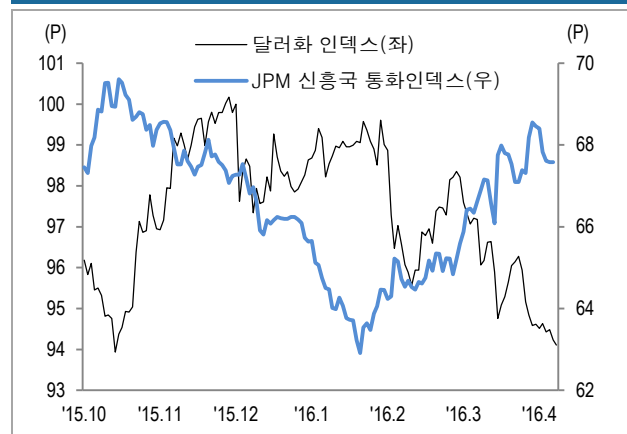
-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며 재차 배럴당 40달러선에 근접했고, 지난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미 연준의 신중한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 등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KOSPI가 힘겨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찾을 수 있다. KOSPI의 12개월 Forward PER이 최근 몇 년간의 박스권(10~11배) 상단에 위치하면서 주요 업종대표주들의 1/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 여기에 더해 대표적인 신흥국 위험지표라 할 수 있는 JP모건 EMBI 스프레드나 CITI Macro Risk Index가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지표의 경우 아직 2월 고점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달러화와 신흥국 통화 간의 엇갈린 움직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특히, 원자재 생산국을 대표하는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의 통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스트레스 지수(Financial Stress Index, 금융시장과 정책요인의 불확실성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계량화한 지수)도 하방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하면서 달러화의 속도조절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커 보인다.

CITI Macro Risk Index와 EMBI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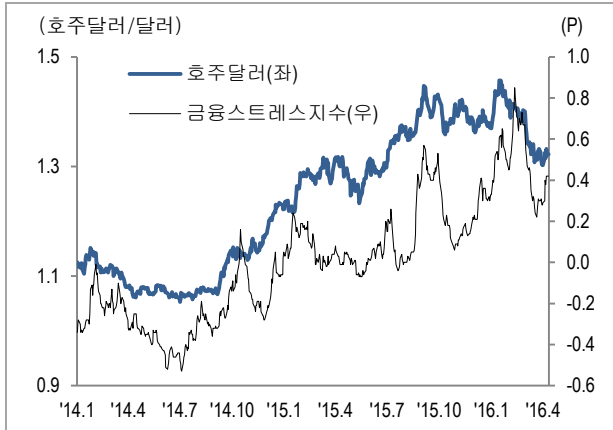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달러화 및 신흥국 통화가치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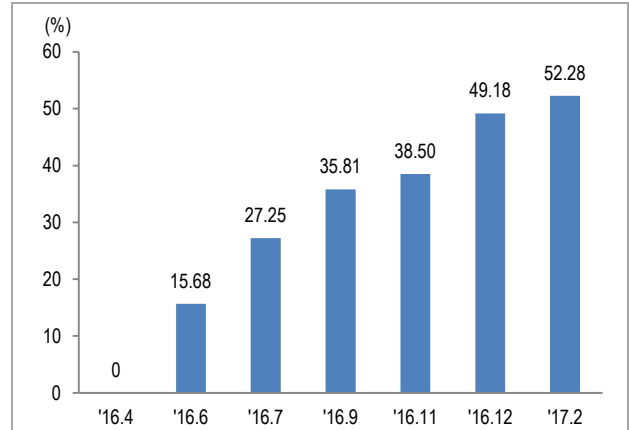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BoA 메릴린치 금융스트레스 지수와 호주달러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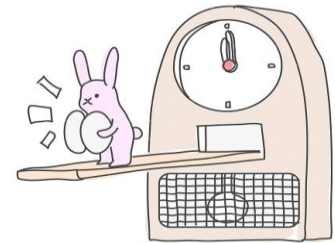
2017년 2월 FOMC까지 연준의 금리인상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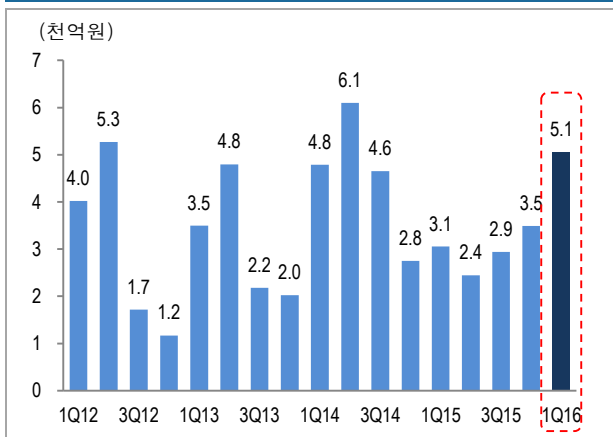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의 호실적 확인

- 전일에는 LG전자의 1/4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되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높아진 기대마저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4분기에 13.4조원의 매출액과 5,0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Fnguide가 집계한 1/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연초대비 약 26.4% 상향조정)를 18.4% 넘어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어컨 성수기 효과와 3월 31일 출시된 'G5' 흥행 가능성, 브라질올림픽 특수, 프리미엄 가전사업 확대 등으로 2/4분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
-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확인되면서 이익모멘텀 개선과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8일 WM Dai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퍼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주요 업종 대표주들의 이익모멘텀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의 시장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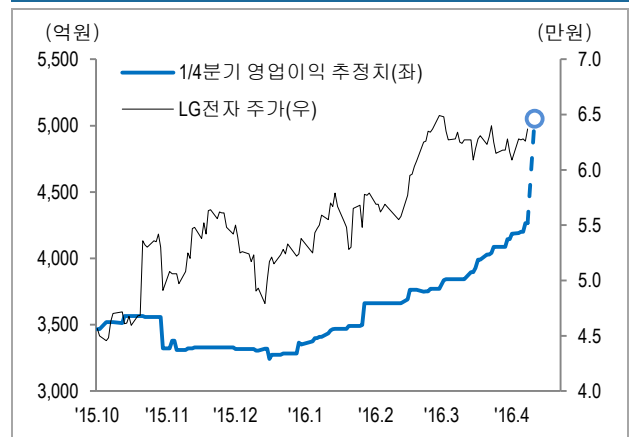


LG전자 1Q 영업이익 5,052억원 달성



자료: LG전자,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LG전자 1Q 영업이익 추정치와 주가 추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